

#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

### 행안부, 광주 옛 국군병원에 본원...피해자·가족 치유 지원 상담실·심리검사실·요리실·자료보관실·야외 쉼터 등 마련

광주시와 제주도에 1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가 출범한다.

이날 오전 11시 광주 서구 화정동(옛 국군광주병원)에서 열리는 치유센터 본원 출범식에는 고기동 행안부 차관, 강기정 광주시장, 관련 유족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같은 날 본원인 제주 치유센터 출범식에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를 비롯한 오영훈 제주지사, 4·3 유족회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치유센터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폭력, 적대세력 및 국제테러단체에 의한 피해자와 가족의 심

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행안부행안부는 법률 제정과 치유센터 설립에 앞서 2020년부터 광주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치유 활동 시범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성 및 광주시의 유치 의사 등을 고려해 2021년 치유센터 건립 위치를 광주시로 확정했다. 광주 치유센터에는 총 107억원이 투입됐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224㎡) 규모로 지난 4월 준공됐다. 지상 1층에는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가족상담실, 중정 등이, 2층에는 프로그램실, 요리실, 단체

상담실, 물리치료실, 대기실 등이, 3층에는 자료보관실, 야외쉼터 등이 마련됐다.

또 제주도에는 제주 4·3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보듬고 특화된 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주센터를 동시에 개관했다.

이번 출범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5월 광주시 등과 함께 치유센터 이용자와 유족회 등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치유센터 개관 및 이용 안내 설명회 등도 개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출범으로 피해자와 가족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치유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신·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동강대학교의 제1회 K-컬처 페스티벌 및 비전선포식이 29일 대학본관 나이트게일홀에서 열렸다. 이민숙(가운데) 총장을 비롯한 글로벌다문화교육자문위원들이 비전선포식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우여곡절' 호남고속도로 첨단방면 연결로 개통 임박

### 산월IC 인근~전자공고 인근 6년만에 공사 완료...광주시 승인 절차

호남고속도로 첨단방면 진·출입로 개설 공사가 6년만에 마무리됐다.

이 도로는 당초 2019년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당시 주경기장이 있는 남부대와 고속도로 간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설계됐으나, 5년동안 공사가 미뤄진 끝에야 준공하게 됐다.

광주시는 지난 30일 '호남고속도로 첨단방면 진·출입로 개설 공사' 관련 민간공원사업자로부터 승인 요청 서류를 접수받아 준공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신설 도로는 광산구 수원동 5-2번지(호남고속도로 산월IC 인근)부터 광산구 산월동 880번지(광주 전자공고 앞 교차로 인근)를 잇는 757.6m 길이의 고속도로 진출입로다.

광주시는 2019년 6월까지 도로를 완공할 계획이

었으나, 같은 해 도로가 지나는 '봉산공원' 부지가 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포함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이뤄지는 공사는 민간공원사업자와 협의 없이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협의 끝에 도로를 2개 구간으로 나눠 광주시와 민간공원사업자가 각각 시공하기로 하고, 고속도로 진출입로와 민간공원(봉산공원) 주 진입로가 겹치는 210m 길이의 구간에는 지하차도(첨단지하차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는 지하로, 민간공원 주 진입도로는 지하차도 위 지상으로 지나도록 설계했다.

광주시가 맡은 1구간(260m) 공사는 2020년 3월 마무리됐다.

2구간(497.6m)은 2020년 8월 착공했으나, 이번엔 부지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유 시설이 발견되면서 차질이 생겼다. 이 때문에 민간공원사업자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개월동안 공사를 일시 정지하고 사전 협의와 협의를 거쳐 지장물을 옮기는 등 곡절을 겪었다.

광주시는 진출입로 준공 이후 행정절차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도로를 개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진출입로 준공 여부와 별개로 본사업인 '호남고속도로 첨단방면 연결로 개설공사' 사업 기간은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 연장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첨단지구의 유동 인구가 많아진 데 따라 고속도로 진출입로 수요도 크게 늘어났지만 도로 준공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며 "아직 정확한 개통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행정 절차를 마치고 개통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동강대 "글로벌 다문화 인재양성 선도"

### 비전 선포·5대 전략 공개... '제1회 K-컬처 페스티벌' 개최도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글로벌 다문화 인재양성 선도 대학'의 비전을 선포했다.

동강대는 지난 29일 캠퍼스 본관 5층 나이트게일홀에서 '글로벌 비전 선포식'과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제1회 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동강대는 다문화 가족과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실천하고 지역의 자부심이 되는 대학, 다문화 인재양성 선도 대학의 면모를 다지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이날 동강대는 'Global Life, DU it Great 2030!' 글로벌 비전과 5대 전략을 공개했다.

GREAT는 ▲G(Global: 세계성+지역성) 광주의 모습을 세계에 담은 글로벌 대학 ▲R(Respect: 문화 존중) 다름의 문화를 이해하는 존중 대학 ▲E(Exemplary: 모범) 공존과 상생

의 교육실천 모범 대학 ▲A(Acceptance: 수용) 다양성의 수용과 포용의 긍정 대학 ▲T(Together: 함께) 품격 높은 무한 가치를 실현하는 다함께 가는 대학의 뜻을 담았다.

동강대는 이민숙 총장의 글로벌 비전 선포 선언문 낭독에 이어 글로벌 다문화교육위원회 위원 12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K-컬처 페스티벌'은 예시를 거쳐 선출된 15개국 31개 팀이 테마가 있는 'K-POP 콘테스트', 주제가 있는 'K-한글 콘테스트' 등의 무대로 펼쳐졌다.

동강대 이민숙 총장은 "글로벌 비전 선포식과 K-컬처페스티벌을 발판으로 동강대가 추구해 온 교육의 가치와 본질을 글로벌 다문화라는 변화와 혁신을 담아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의료법 위반' 고발 당해

### 폐업 전 전원초치 공지 누락

최근 폐업 절차에 돌입한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의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광주시 서구는 지난달 28일 광주서부경찰에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서구는 해당 병원장이 병원 폐업을 앞두고 입원

환자 전원 조치과정에서 환자·보호자에게 공지하는 절차를 누락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상 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폐업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 게시해야 한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릴어야 한다.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지난달 25일 환자와 보호자에게 별다른 예고 없이 전체 413명 중 입원환자 336명에 대한 전원 조치를 단행했다.

해당 병원은 2020년 광주 청연 메디칼그룹의 경영난으로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아 왔다.

서구는 지난달 26일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전원 조치 관련 공지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 광주 북구 '희망의 거리' 조성 추진 전략·디자인 계획 공개

광주시 북구가 지역 명소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인 'HOPE STREET'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전략과 디자인 계획을 공개했다.

북구는 최근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HOPE STREET' 조성사업 디자인 개발 및 실시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섰다

이에 따라 공원 스폿존 3곳(가작 어린이공원·비둘기공원·일곡 제2근린공원), 거리 포토존 6곳(서일초·일곡초·일곡중·국제고·일곡·삼각마을), 청소년 거점센터 2곳(남도향토음식박물관·일곡중)이 조성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시, 한식·식육식당 음식물 재사용 특별점검

### 446곳 대상...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자정 캠페인 나서

광주시는 "1일부터 19일까지 한식·식육 취급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광주시는 자치구·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등 5개 반 35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300㎡ 이상 한식당과 식육·한우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446곳을 상대로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를 집중확인한다.

시는 특히 음식물 재사용 여부와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시설 위생 관리, 식품의 보관 온도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법 여부가 발견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

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점검과는 별도로 광주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임원 등은 오는 4일 일반음식점 업주 400여명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자정 결의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광주 북구의 한 정육식당에서 간판을 재사용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재료를 사용했다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손숙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음식물 재사용 위반 등에 대한 위생점검을 철저히 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